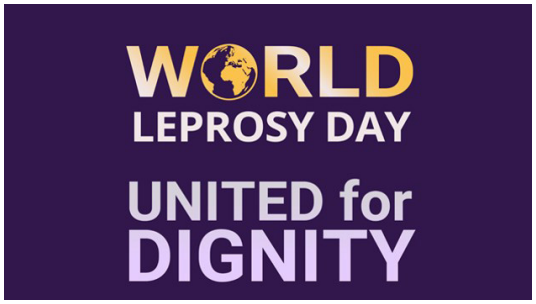
건강이슈

세계 한센병의 날(World Leprosy Day)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박수진*, 김수진**

*교신저자: skysj003@korea.kr, 043-719-7342



출처 : www.ilepfederation.org

2022년 1월 30일은 「세계 한센병의 날(World Leprosy Day)」로 매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기념한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자선사업가인 라올 폴레로(Raoul Follereau 1903~1977)는 아프리카 여행 중 비참한 한센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1954년 1월 31일 마지막 일요일에 프랑스 의회에서 세계 한센병의 날을 제창하였다. 결의 선포 시 '인간이 혼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라고 외쳤고, '1년 수입의 한 시간만 한센병환자를 위해 쓰자' 라고 호소했다. 이 선포는 순식간에 세계로 퍼졌고, 1963년 3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을 한센병의 날로 재정하여 대국민 계몽활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한센병의 날을 기념하여 한센병이 유행하는 국가와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나예방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nti-LEProsy Associations, ILEP) 회원국을 중심으로 미디어 캠페인, 행진, 공식회의, 기부, 모금 활동 등이 진행된다.

올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2년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병을 경험한 사람들을 기리고,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한센병과 관련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 주창하였다. 특히, '존엄성을 위한 연대: United for DIGNITY'란 주제로 한센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정신적 건강과 질병 관련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존엄있는 삶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는 "① 우리는 모든 목소리를 높여 한센병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존중할 수 있다. ② 한센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낙인, 차별, 고립으로 인해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직시한다. ③ 한센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질병과 관련하여 낙인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다. 또한, 한센병 퇴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친선대사인 사사카와 요헤이는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한센병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치료받을 기회가 어려워졌으며, 한센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센병을 잊지마세요'의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고, 해당 캠페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센병이 잊혀지지 않고, 환자들의 요구가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나 아직까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한센총연합회에서는 매년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일인 5월 17일에 "한센가족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전국 한센인들은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사랑축제한마당, 가족노래자랑 등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2년 동안은 전국 한센인들이 모이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올해 역시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고려하여 5월에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The Spirit of Father Damien. 2010.
2. 한국한센복지협회. 2001. 한국나병사.
3. www.ilepfederation.org_News.
4. www.who.int/news.